

2024. 1. 19.(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724-0138
조사연구과장	최형수	724-0140
담당자	정수인	724-0143
관련 누리집 (메뉴)	<a href="https://museum.seoul.go.kr">https://museum.seoul.go.kr</a> 상단 <학술총서> → 좌측 <발간도서>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8쪽

### 회현동 동래정씨·정동 여주이씨... 서울시, 한양 세거 명문가 거주 양상 연구

<한고장에 대대로 삶>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 주요 가문의 거주문화를 밝히는 ‘한양 세거지(世居地)’ 발간
- 북촌 양반·동촌 무관·중촌 중인 등 동·서·남·북·중 5개 지역별 거주자 특성 나타나
- 본관이 아닌 세거 지명 따와 통용, 정동거주 여주이씨는 ‘정동이씨’로 불려
- 서울시민들에게 흥미로운 역사사실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연구 이어나갈 계획

조선 후기 한양은 주로 북촌에는 양반이, 서촌에는 하급 관리가 많이 살았으며, 양반들이 일정 지역에서 대대로 모여 살아 온 경우 본관이 아닌 지명을 따와 성씨를 구분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조선 500년간 서울 회현동에 터를 잡고 살았던 ‘동래정씨’를 ‘회동(회현동)정씨’라고 말해도 한양사람들에게는 통칭되었던 것.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조선시대 한양의 거주지 실태 양상 연구한 『한양의 세거지(世居地)-서울기획연구 11』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금) 밝혔다.

- 이번 연구에는 안대회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책임으로 이종묵 서울대학교 교수, 오세현 경상대학교 교수, 김하라 연세대학교 교수, 김세호 경상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 조선 후기 한양의 거주 양상을 살펴보면 신분별·직업별로 모여 사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 후기 한양 인구는 약 19만명. 한양을 동·서·남·북·중 5개 지역으로 나눠 ▲(동촌)반인(伴人)과 무관 ▲(서촌)하급 관리 ▲(남촌)남인과 소론·소북 ▲(북촌)양반과 종친 ▲(중촌)중인과 시전 상인이 주로 살았다.
  
- 또 양반들의 경우 서울 곳곳에 세대를 거듭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거주 지역명이 본관의 별칭처럼 불리기도 했다. 한 곳에 오래 모여 거주하다보니 집안의 고유한 문화가 지역성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많았다.
  
- 예컨대 조선 500년간 회현동에 대대로 살았던 동래정씨(東萊鄭氏)는 회현동의 이름을 따 회동정씨(會洞鄭氏)로 불렸다. 회동정씨는 조선 개국 이래 회현동에 세거하면서 한양 조망이 가능한 쌍회정, 재산루, 흥엽정 등을 조성했고 인근 남산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 한편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대문 가문은 당파에 따라 거주지가 달리었는데, 소론은 회동의 동래정씨를 중심으로 남산 밑에 자리 잡고 풍산홍씨와 조씨, 전주이씨, 경주이씨, 대구서씨 등은 남산 자락 소론 명문가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였다.

- 한양의 동촌에 터전을 이룬 연안이씨(延安李氏)는 관동이씨(館洞李氏)로 불렸다. 초기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이석형이 동촌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곳에 연안이씨가 모이기 시작했고 그 후손 이정귀(李廷龜, 1564~1635)가 관동에 거주하면서, ‘관동파’라는 조선 중기 문인들의 모임을 주도했다.
- 정동이씨(貞洞李氏)는 정동에서 거주하는 여주이씨(驪州李氏)를 일컫는 말이다. 고려 후기 개경을 세거지로 삼았던 여주이씨 가문은 한양과 주변을 옮겨 다니다가 17세기 이상의(1560~1624)부터 정릉에 거주하였다. 그의 증손자인 실학자 이익은 그의 저서 성호전집, 단헌기에서 ‘우리 이씨는 증조부 이상공(貳相公, 이상의) 때 정릉동에 집을 정한 이래 사람들이 ‘정동이씨’라고 일컬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정동이씨 이가환은 한양 사대부의 거주지 양상을 『정헌쇄록(貞軒鎖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서울의 오래된 저택으로 국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는 건천동(乾川洞)의 조씨(趙氏)저택, 주자동(鑄字洞)의 권씨(權氏)저택, 숭례문(崇禮門) 밖 순청동(巡廳洞)의 유씨(柳氏)저택, 돈의문(敦義門) 밖 아현(鵝峴)의 황씨(黃氏)저택 및 내가 살고있는 황화방(皇華坊)의 김씨(金氏) 저택이 있다.

- 마지막으로 인왕산 근처 장동에 자리 잡아 장동김씨(壯洞金氏)라 불리는 청풍계 안동김씨(安東金氏)가 있다. 장동김씨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과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며 척화를 주장한 김상헌의 후손들로 장동일대에서 고유한 문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하다.

- 지역 이름이 붙지는 않았으나 북촌과 용산일대에서 세거한 전주이씨 (全州李氏)도 꼽을 수 있다. 전주이씨 영해군 파는 인왕산 기슭과 용산의 본가, 두릉(반포)의 별서, 광주 및 저자도의 선영을 운영했는데 한 집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본가와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어떠한 생활을 영위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
  
- 이번에 공개한 『한양의 세거지』는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서울책방 매장 및 누리집(<https://store.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내 뮤지엄 습 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 15,000원. 문의 : 02-739-7033)
  
-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조선시대 한양의 명문가의 거주 실태를 연구한 결과 본관을 떠나 지역명을 성씨 앞에 붙여 통용하는 경우 등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서울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회동정씨(會洞鄭氏) : 조선왕조 5백 년 동안 회현동에 세거한 동래정씨(東萊鄭氏)
  - 회동정씨는 조선왕조 개국 이래로 남촌 지역에 터를 정하여 살았고, 대한제국기에 일본인이 남산 아래에 침략의 거점을 마련하여 밀려난 시기까지 500년 동안 살았다. 남산 자락에 오랫동안 거주한 회동정씨는 10여 명의 정승과 수많은 고관을 배출한 한양의 대표적 가문으로 자리 잡았다.
  - 회동정씨는 회현동의 경관과 문화에 큰 자취를 남겼는데 한양을 조망할 수 있는 정자로 쌍회정, 재산루, 홍엽정 등이 있다. 이들은 남산의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이 중에 홍엽정은 대한제국기 회동정씨의 후손 이회영이 독립자금을 위해 매각하였는데, 이를 이완용이 구입하였고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다.
  - 조선 후기 사대문 가문은 당파에 따라 거주지가 달랐는데, 소론은 회동의 동래정씨를 중심으로 남산 밑에 자리 잡았다. 풍산홍씨와 조씨, 전주이씨, 경주이씨, 대구서씨 등이 남산 자락 소론 명문가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였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 북촌과 용산에 거주한 전주이씨
  - 전주이씨 영해군파는 시기를 달리하여 본가(本家)와 별서(別墅), 선영(先塋)을 운영하였는데 인왕산 기슭과 용산의 본가, 두릉(반포)의 별서, 광주 및 저자도의 선영이 있었다.
  - 이춘제(1692~1760)의 본가는 장의동이며, 그의 집은 인왕산 기슭의 북동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묘소를 본래 선영인 광주에서 분리해 저자도(압구정동·옥수동 사이 한강의 섬)에 마련했고, 인근에 병사(丙舍, 선영을 관리하는 사람의 집)를 세워 지내기도 하였다.
  - 이춘제의 아들 이창급(1727~1803)은 노년에 본가를 용산으로 옮기고 일와정(一臥亭)을 세운 후 본인을 일와옹(一臥翁)이라고 불렀다. 두릉의 언덕에 별서 만희정을 세웠고 저자도를 자주 들리며 많은 시를 남겼다.
- 관동이씨(館洞李氏) : 동촌에 터전을 이룬 연안이씨(延安李氏)
  - 한양의 동촌에는 이석형을 비롯한 연안이씨가 자리 잡았고, 그의 후손 이정귀(李廷龜, 1564~1635)는 관동에 거주하면서, ‘관동파’라는 라는 조선 중기 문인들의 모임을 주도하였다.
  - 이정귀는 1575년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11명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

는데, 나이, 사는 곳, 취미, 학사(學舍) 그리고 구성원의 수와 나이가 같은 모두 5가지가 공통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만든 ‘오동계(五同契)’였다. 이후 혼인과 문인과의 교류 등을 확대하면서 ‘관동파’가 형성되었다.

- 관동파는 ‘삼소(三蘇)’라고 불리우는 이정귀와 그의 아들 이명한, 이소한에 의해 뿌리내렸고, 팔상(八相, 이명한과 이소한 형제의 아들로 돌림자 상(相)을 사용하는 8명을 의미)을 통해 17세기 중·후반에 화려하게 피어났다.

□ **정동이씨(貞洞李氏) : 소릉(少陵) 이상의와 정동의 여주이씨(驪州李氏)**

- 고려 후기 개경을 세거지로 삼았던 여주이씨 가문은 한양과 주변을 옮겨 다니다가 17세기 이상의(1560~1624)부터 정릉에 거주하였다. 정릉에 거주한다고 하여 그를 소릉(少陵)이라고 불렀다. 그의 증손자인 실학자 이익은 그의 저서 『성호전집』 「단헌기」에서 ‘우리 이씨는 증조부 이상공(貳相公) 때 정릉동에 집을 정한 이래 사람들이 ‘정동이씨’라고 일컬었다.’ 라고 밝히고 있어 정릉동의 대표 가문임을 알 수 있다.
- 1801년 천주교 박해인 신유옥사(辛酉獄事)에 연류된 소정릉동의 여주이씨, 주자동의 안동권씨, 아현동의 창원황씨는 더 이상 조상의 옛집을 지킬 수 없었다. 신유년의 천주교 박해로 한양의 사대부 세거지 중 적어도 세 곳이 동시에 소멸했다.

□ **장동김씨(壯洞金氏) : 청풍계, 안동김씨(安東金氏)**

- 장동김씨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과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며 척화를 주장한 김상헌의 후손들이다. 19세기에는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등극하고 세도정치를 통해 국정을 주도하여 위명을 떨쳤다. 이들이 경영한 별서 가운데 청풍계(淸風溪)는 단연 유명하며 정선이 그린 그림이 다수 남아 전한다.
- 김상헌의 손자 김수증·김수홍·김수항과 김수항의 여섯 아들 김창집·김창협·김창흡·김창업·김창즙·김창립 등을 오늘날 편의상 ‘삼수 육창(三壽六昌)’이라 일컫어지는 인물들로 그들은 조선 후기 장동의 문인들과 교류하고 시사를 조직하여 고유한 문화를 이끌어냈다.
- 장동김씨의 구심점인 청풍계를 비롯하여 장동김씨 여러 사람이 별서를 운영하였다. 김수증의 청람대, 김수홍의 독락정, 김수항의 육청헌, 청휘각이 있었으며, 독립운동가 김가진의 별서 백운장은 장동 백운동에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가 쓴 ‘백운동천’ 각자가 남아 과거의 자취를 증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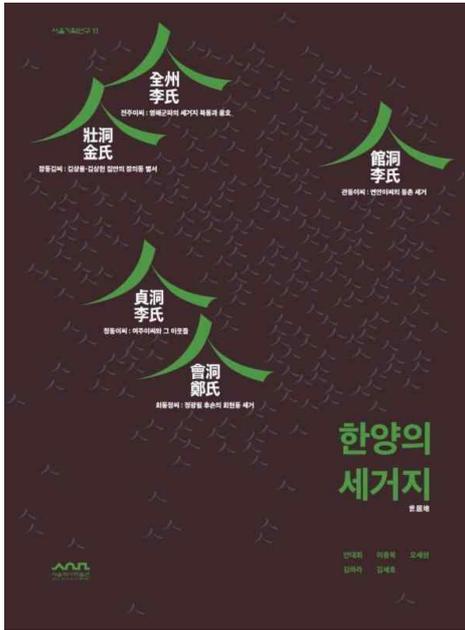


그림 1 표지



그림 2 조선시대 한양의 주요 명문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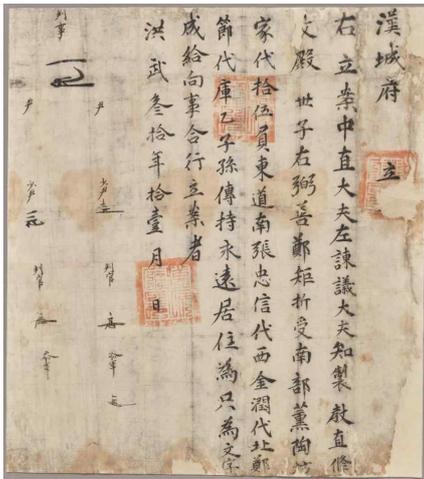


그림 5 「한성부입안」,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동래정씨 정구에게 발급한 입안으로 시기가 가장 앞선다



그림 4 「서울관원거주지 명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고종 시대 고관의 이름과 거주지를  
간략하게 써 놓은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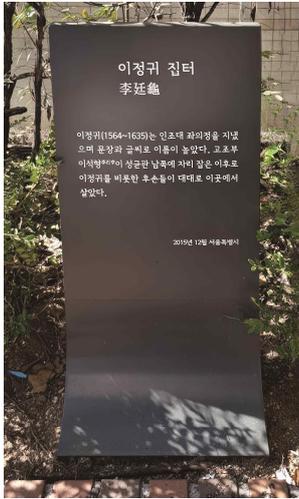


그림 5 이정귀 집터 표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4가  
1-2번지



그림 6 정선, 「청풍계지각(淸風溪池閣)」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장동김씨의 중심인 김상용의 청풍계 별서를 그린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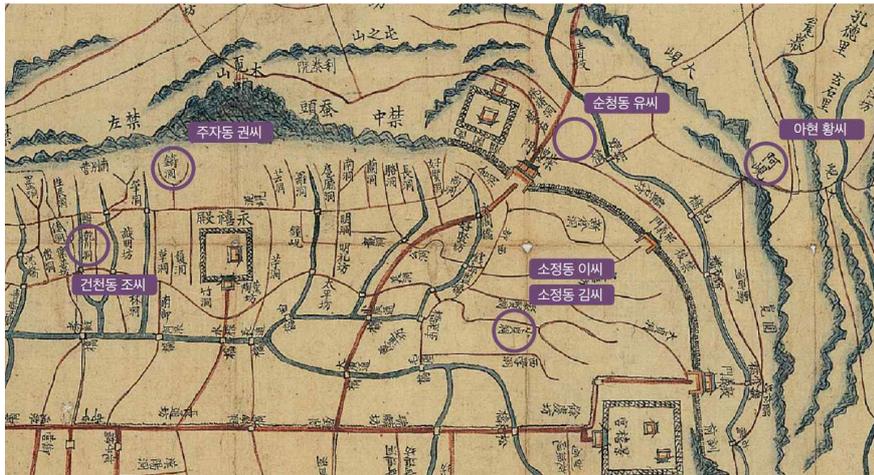


그림 7 18세기 말 서울 사대부 세거지 중 주자동 권씨, 건천동 조씨,  
아현 황씨, 순청동 유씨, 소정동 이씨와 김씨 표시